

## 가도하치만구 신사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마쓰바라 6 개 신사 순례지의 하나. 혼다와케노미코토를 제신으로 모신다. 교토의 이와시미즈 하치만구 신사의 분령을 모셔온 것이다. 1744 년의 ‘료가도무라 명세장’ 에는 ‘十五社明神(15 개 신사의 묘진)’, 1802 년의 ‘히가시가도무라 명세장’ 에도 ‘氏神十五社神(씨족신을 모신 15 개 신사)’ 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에도시대에는 주고샤(十五社)라고 불렸다.

1868 년부터 하치만 신사라 칭한 후, 1913 년에 우부스나 신사로 개칭하였으나 이후 가도하치만구 신사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액운과 재앙을 막는 액막이 신사로도 알려져 있다.

1868 년까지 현재 사무소가 있는 장소에 신사에 부속된 황벽종 사원이 있었다. 동 절의 본존인 아미타여래상은 61.5cm 의 좌상으로 불상 뒤에 ‘本尊阿弥陀如来 神宮寺置之 永和三丁巳年 施主成田誓玄居士’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명문에 의하면 나리타 가문이 남북조 시대의 1377 년에 기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불상은 가까운 젠쇼지 절(아마미가도)로 옮겨졌다.

현재의 서쪽 도리이 신사문은 일찍이 참배길이었는데 이 도리이쪽에 6 개의 지카라이시 바위가 놓여 있다. 히가시가도무라와 니시가도무라의 젊은이들이 힘자랑을 위해 들어올린 타원형의 자연석이다. 6 개의 돌에는 각각 ‘明治石 東連中□□□’, ‘金剛石 東連中’, ‘八幡石 西連中’, ‘竜王石 西連中’, ‘力石 東連中’, ‘力石 西連中’ 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으며 메이지시대 초기 것으로 추정된다.